2026.11.18

수요집회

들어가고, 드러나는

마태복음 5:13–16

INTRO

AI 시대, 그리스도인의 가치

기술이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

AI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일상의 판단까지 돕는 시대

AI가 줄 수 없는 것을 성도들이 줄 수 있다.

제자의 정체성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 머무는 소금과 빛이 아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소금과 빛

PART 1 · 여기, 소금 좀 주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풍부하게 한다 · 부패를 방지한다 · 치료에 사용된다

소금은 필요한 곳에 '들어갈 때' 그 역할을 합니다.

단절이 아니라 관계

세상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멀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함께 들어가기

판단 · 정죄 · 비난 → **가까이 다가가 관계 맺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 타락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소금 좀 주실래요?

PART 2 · 여기, 불 좀 켜주실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되신 주님을 떠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빛'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MATTHEW 5:14–16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 없고,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1)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 없음 (14절)

2)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춤 (15절)

3)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 (16절)

LIVING AS LIGHT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

타협이 아닌, 구별된 삶으로 관계를 이어가기

학교 · 가정 · 직장 · 이웃...

정직함 | 겸손 | 화평 | 정결함 | 섬김

죄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신 예수님처럼

여기, 불 좀 켜주실래요?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다.
세계 곳곳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모두 받고서도 왜 우리는 이 아까운 자원을 교회 안에서 썩히고 있을까?

복음을 들으러 교회에 오기보다는 복음을 들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갈 때다.

(데이비드 제러마이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GO INTO THE WORLD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 머무는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고, 드러나는 소금과 빛***